



▶ Analyst 박세연
3772-7406 | shannon@hanwha.com

주요 이슈

시사점

탄소배출권

국내 배출권 가격, 정상화에 대한 기대

정부가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보호하고, CBAM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배출권 가격 상승을 유도할 것입니다.

이소영 의원의 '배출권거래제 정상화법' 발의와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압력이 맞물리며 KAU25 가격 변동성을 확대시켰다. 법안 발의 이전 일별 변동성 0.2%(8/1~26)이 3.4%(8/27~9/3)로 증가했다.

국내 배출권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이 이번 가격 변동성에 일조했다. 국내 시장은 제한된 시장 참여자와 낮은 유동성, 이월 제한으로 인해 거래량이 연말에 집중되는 특성을 보인다. 이번 움직임은 단순한 계절적 요인보다 CBAM 시행과 국내 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할당업체들이 미래 탄소비용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 ✓(국내)법안 발의 : 배출권 수요 증가를 통한 가격 정상화가 주된 목적. 유상 할당 비율 확대, 잉여 배출권 관리 강화, 정부의 시장 개입 근거 마련 등
- ✓(해외)CBAM : CBAM은 국내 배출권 가격에 직접 연동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조적 압력으로 작용. 국내 기업들의 EU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국내 탄소가격 정상화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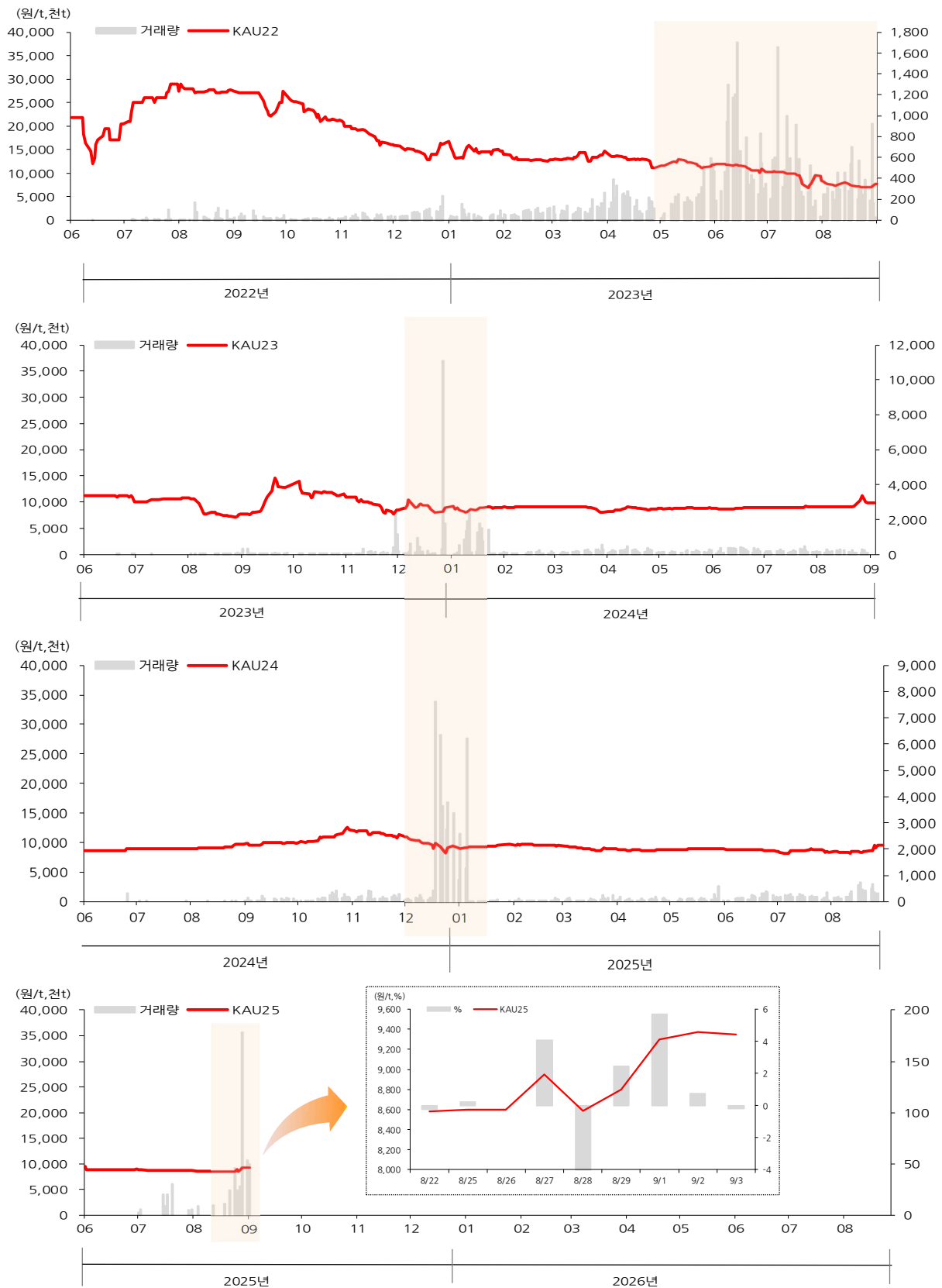
유상할당 비중 확대, 배출권 가격 정상화→ 전기요금 상승 압력으로 작용
정부는 배출권 가격 목표치를 6만원으로 설정했으며, 발전사 대상 유상할당 비율을 현재 10%에서 2029년 50%로 확대할 예정

- ✓발전 부문 연간 배출권 비용 1,955억('23년 약 2억 3천만톤 기준, 유상할당 10%, 8,500원)→4조250억원이상

탄소배출권 시장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 전개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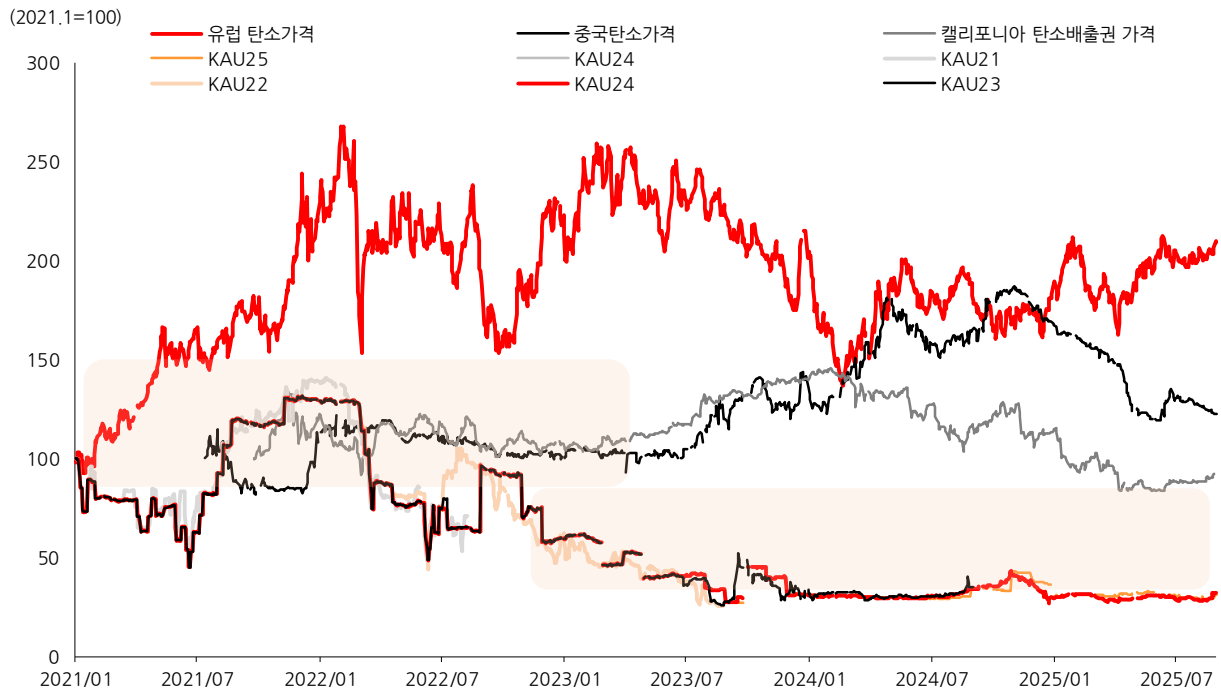
에코아이(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배출권 판매 매출비중 35% ↑, 국내 i-KOC 기준 발행 점유율 55% 이상), 에코바이오(바이오가스 기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통해 전기·수소 생산, 사업에서 창출된 온실가스 감축분이 ETS로 발급)

[그림1] 국내 배출권 가격(2022-현재) → 9/3 기준 9,350 원



자료: KRX,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주요 탄소가격(EU, 미국, 중국) → 우리나라 배출권가격 줄곧 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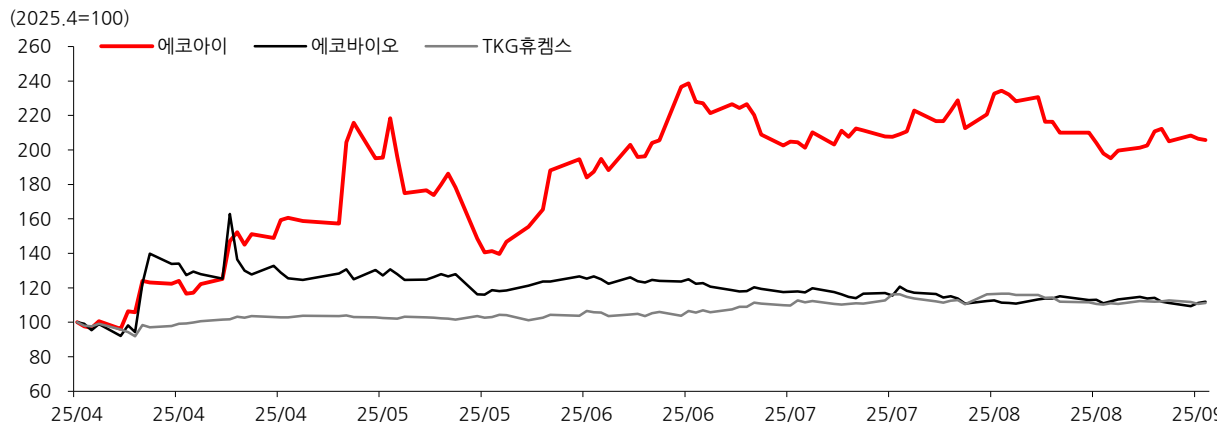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이소영 의원 '배출권거래제 정상화법' 발의안 주요 내용

구분	현행	발의 법안
총 무상할당비율 상한 설정	무상할당 90%, 유상할당 10%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동안 무상할당비율 80% 이하로 제한 실질 유상할당비율 최소 20% 확보
실질 유상할당 비율 확보	명목상 10%이나, 다배출 업종 등에 대한 예외 조항으로 유상할당 4% 수준	각 예외 조항 철폐를 통해 유상할당비율 최소 20% 이상 보장
잉여 배출권 관리	직전 계획기간의 잉여 배출권이 시장에 이월되어 배출권 가격 급락 및 시장 기능 저해 (2025년 1억 4천만톤 잉여 예상)	직전 계획기간 잉여분을 예비분으로 보유하여 과잉 공급 방지,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배출허용총량에 포함
시장 안정화 조치	배출권 가격 급변동에 대한 정부의 시장 개입 근거가 미비 (현재 톤당 8천원대, EU 11만원, 캘리포니아 3~4만원 대비 저평가)	배출권 가격 급변동 시 정부의 시장 안정화 조치 근거 마련 유상할당 배출권의 시장 공급물량 조정 가능
발전부문 유상할당 확대	산업부문과 발전부문 구분 없이 저조한 유상할당 비율	전체 유상할당비율 20% 확보를 위해 발전부문에서 5년간 할당량 중 50% 이상을 유상할당으로 포함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탄소 배출권 가격 상승 수혜주 주가 추이



자료: Quantwise,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공표일: 2025년 9월 4일)

이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였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했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과 관련해 공표일 현재 관련 법규상 알려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박세연)
저희 회사는 공표일 현재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종목 투자등급]

당사는 개별 종목에 대해 향후 1년간 +15% 이상의 절대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 Buy(매수)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절대수익률 -15~+15%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Hold(보유) 의견을, -15% 이하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Sell(매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밸류에이션 방법 등 절대수익률 산정은 개별 종목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의 추정에 따르며, 목표주가 산정이나 투자 의견 변경 주기는 종목별로 다릅니다.

[산업 투자의견]

당사는 산업에 대해 향후 1년간 해당 업종의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Positive(긍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1년간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utral(중립적) 의견을, 과거 수익률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gative(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수익률 전망은 해당 산업 내 분석대상 종목들에 대한 담당 애널리스트의 분석과 판단에 따릅니다.

[당사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부여 비중]

(기준일: 2025년 6월 30일)

투자등급	매수	중립	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중	90.4%	9.6%	0.0%	100.0%